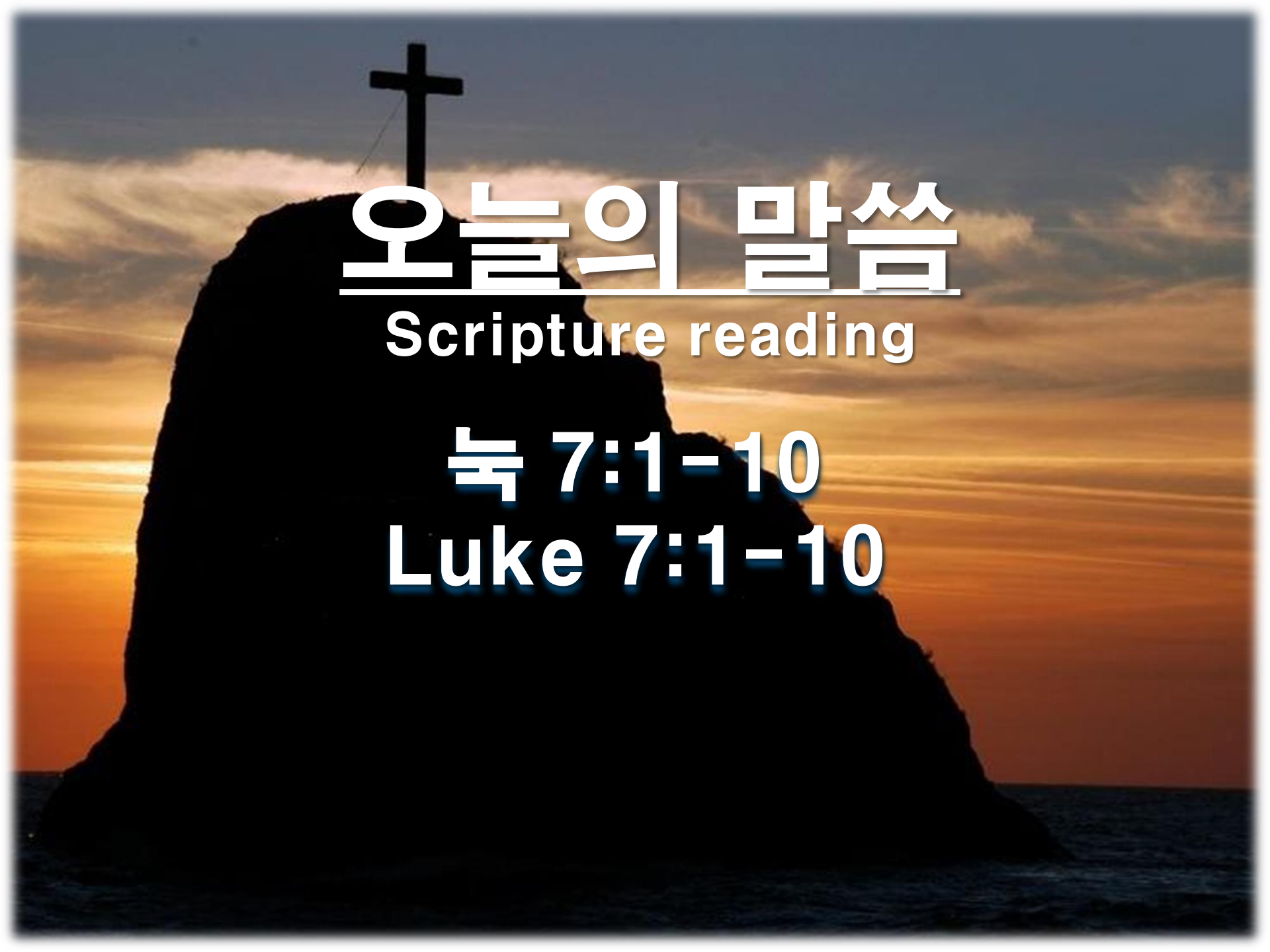

오늘의 말씀

Scripture reading

눅 7:1-10

Luke 7:1-10

누 7:1-10
Luke 7:1-10

1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1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all this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he entered Capernaum.

누 7:1-10
Luke 7:1-10

2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2 There a centurion's servant, whom his master valued highly, was sick and about to die.

누 7:1-10
Luke 7:1-10

3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3 The centurion heard of Jesus and sent
some elders of the Jews to him, asking
him to come and heal his servant.

누 7:1-10
Luke 7:1-10

4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4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pleaded earnestly with him, "This man deserves to have you do this,

누 7:1-10
Luke 7:1-10

5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5 because he loves our nation and
has built our synagogue."

누 7:1-10
Luke 7:1-10

6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들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6 So Jesus went with them. He was not far from the
house when the centurion sent friends to say to
him: "Lord, don't trouble yourself, for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누 7:1-10
Luke 7:1-10

7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7 That is why I did not even consider myself worthy to come to you. But say the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누 7:1-10
Luke 7:1-10

8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8 For I myself am a man under authority, with
soldiers under me. I tell this one, 'Go,' and he
goes; and that one, 'Come,' and he comes. I
say to my servant, 'Do this,' and he does it."

누 7:1-10
Luke 7:1-10

9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9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amazed at
him, and turning to the crowd following him,
he said, "I tell you,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even in Israel."

누 7:1-10
Luke 7:1-10

10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10 Then the men who had been sent returned to the house and found the servant well.

설 교

“말씀만 하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Say the word, and let be healed

외모지상주의

인종, 성별, 종교, 이념, 외모

루키즘’ (Lookism)

마 11:23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Mt 11:23 And you, Capernaum, will you be exalted to heaven? You will be brought down to Hades. For if the mighty works done in you had been done in Sodom, it would have remained until this day.

I. 우리는 백부장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눅 7:2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Lk 7:2 Now a centurion had a servant who was sick and at the point of death, who was highly valued by him.

눅 7:3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Lk 7:3 When the centurion heard about Jesus, he sent to him elders of the Jews, asking him to come and heal his servant.

“농업에 쓰여 지는 도구가 3가지 있다. 하나는 소리 없는 도구이고, 둘째는 언어가 없는 도구이고, 셋째는 말하는 도구이다.”

눅 7:4-5 ...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Lk 7:4-5 ..."He is worthy to have you do this for him, for he loves our nation, and he is the one who built us our synagogue."

사돈의 팔촌

II. 우리는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눅 7:6-7a …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들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Lk 7:6 … “Lord, do not trouble yourself, for I am not worthy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Therefore I did not presume to come to you."

눅 5:8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

Lk 5:8 "Depart from me, for I am a sinful man, O Lord."

딤전 1:15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1Tm 1:15 The saying is trustworthy and deserving of full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of whom I am the foremost.

벧전 5:5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Pt 5:5 "God oppose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벧전 5:6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1Pt 5:6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so that at the proper time he may exalt you,

III. 우리는 백부장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눅 7:7b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Lk 7:7b But say the word, and let my servant be healed.

눅 7:8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

Lk 7:8 For I too am a man set under authority, with soldiers under me: and I say to one, 'Go,' and he goes; and to another, 'Come,' and he comes; and to my servant, 'Do this,' and he does it."

창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Gn 1:2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over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face of the waters.

창 1: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Gn 1:3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벧전 1:23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1Pt 1:23 since you have been born again, not of perishable seed but of imperishable, through the living and abiding word of God;

벧전 1:24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1Pt 1:24 for "All flesh is like grass and all its glory like the flower of grass.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 falls,

벧전 1:25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1Pt 1:25 but the word of the Lord remains forever." And this word is the good news that was preached to you.

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Heb 4:12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piercing to the division of soul and of spirit, of joints and of marrow, and discerning the thoughts and intentions of the heart.

벧전 5:6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1Pt 5:6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so that at the proper time he may exalt you,

갈 5: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Gl 5:6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counts for anything, but only faith working through love.